

“지속적 해외의료봉사 펼칠 것”

전남대병원, 캄보디아 환아 지원 의료봉사 중 발견 환아 초청 수술 우심재단·위드헤브론 공동 협력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전남대병원의 의료기술 전수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어려운 사정
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캄보디아 어린이
가 전남대학교병원과 비영리법인인 우심
재단 등의 지원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3
일 방실 중격 결손이 있는 캄보디아의 추
른첸트라(chrun chentra·12)가 흉부외
과 정인석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다.
방실 중격 결손은 심방과 심실 사이의 막
이 결손된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지 않을 시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전남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심장과
조화진 교수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4일
간 의료봉사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헤
브론 병원에 방문, 50여명을 진료했으며
그 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 추른첸트라
를 초청해 수술하게 됐다.

이번 수술을 위해 심장병에 대한 학술·
교육·연구·예방활동 및 진료를 지원하는



캄보디아 추른첸트라(사진 맨 오른쪽)와 아버지(오른쪽서 두 번째)가 전남대학교병원
에서 수술하고 회복한 후 의료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우심재단(이사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
수)과 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수술
비를 지원했으며, 국제협력센터와 정인석
교수팀, 마취통증의학과는 물론 (사)위
드헤브론과 (사)세계소아심장네트워크
에서도 도움을 줬다.

추른첸트라는 아버지(chroeng
sythong)와 함께 전남대병원에 입원했
으며,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한 후 지
난 11일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추른첸트라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숨이 차고 운동하기 힘들어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께
서 진료는 물론 한국으로 초대해 수술까

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전남대병
원과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아
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전남대
병원 의료진이 헤브론병원에서 직접 수술
을 집도했으나, 최근 현지 병원의 간호사
들이 일을 그만두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돼
전남대병원으로 직접 초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전남대병원의 의료기술 전수는 물론 어려
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보문복지재단, 보호대상·가져위탁아동 후원금 기탁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은영)은 지난 27일 광주 동곡미술관에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지원’ 후원금 1억50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에는 정영현 재
단법인 보문복지재단 이사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인
기 보문고등학교 교장,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의 보호대상아동 후원은 2021년부터 3년째 지속돼 누적
4억원의 후원금을 기록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보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자체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203만9060원의 후원금도 함께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전달된 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지원 △심리정
서적지원 △자립지체체계강화 △위탁가정아동들의 안정적인 친가정 복귀를 위
한 아동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달된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의 후원금은 어린이재
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한 ‘광주형 사각지대없는 아동자립프로젝트’를 통해
자격취득지원 54명, 자립키트(첫 살림 지원) 180명, 심리치료 28명 등 총 492
명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강주비 기자



빛고을 50+센터, 빛나는 인생학교 3기 개강

광주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 50+센터(센
터장 정찬기)는 28일 빛나는 인생학교 3기를 개강했다고 밝혔
다. (사진)

인생학교 제3기 교육은 강당 수용 공간을 고려 20명을 모집해
매주 1회 10주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변연의 나 관찰하기(심리극 등) △관계 맺기(동심
의 세계로 소풍과 보물찾기·내가 찾는 일과 여가 생활) △무한
도전(우리는 무엇을 할까·50+ 선배와 만남 등 커뮤니티 구성)
△생애 컨설팅으로 재무, 일, 관계, 심리 등 유관기관 전문상담
사를 초빙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양성한 광주시민 장년층이 인생학교 양교
르강사로 투입돼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찬기 빛고을 50+센터장은 “장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해 장년층 생애 재계 전문기관(아지트) 기관이 되도록
헌신적으로 임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여수 문수주거행복지원센터, 건강상담 주택관리공
단 여수 문
수주거행복지원센터(센터장 신광준)는 최근 여주시 보건소와
함께 문수주거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
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건강실천 운동 독려와 함께 이동상담
및 캠페인을 펼쳤다. 문수주거행복지원센터 제공



광주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식

광주시교육청이 28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23학년도 장
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202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해 모두가 안전한 광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중
등특수교육과 김선성 과장을 단장으로 특수교육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감, 장애인권상담전문가, 광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 보호자 대표 등 전문성 있는 인력
19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매
월 1회(특수학교 연 2회) ‘정기현장지원’과 학교폭력 및 인권침
해 등 사안이 발생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인권지원단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생 및 보호
자 1:1 맞춤형 사례관리지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 및 운영방
안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 지원 점검 결과 공유 △더불어 학생 지
원 방안 등의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양가람 기자



영암옹양, 자연사랑 실천 캠페인 주택관리공단 영암
옹양·2단지
최근 아동복지센터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단지 조성
과 공동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연사랑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
는 입주민들이 참여해 단지 주변 청소와 공동생활 질서의 중요
성을 알렸다. 영암옹양·2단지 제공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아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위촉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7일 ‘2023년 아동인권교육강사 위촉식’을
통해 올해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을 수행할 강사 15명을 위촉했다. (사진)

이들은 지난해 진흥원이 운영한 ‘아동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로서 오는 4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급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공공
기관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방문해 아동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치게 된다.

광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아동인권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존중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시
에서 진흥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진흥원은 총 85회에 걸쳐 시민 1800
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 참여기관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모집이 완
료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유치원, 초·중·중학교, 지역아
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총 76학급에 파견 예정이다.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 명시한 아동 권리 이해를 위한 활동과 놀이로 구성되며, 아동부터 성인까지 눈
높이에 맞게 교육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
리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성인은 아동 존엄성을 인정하는
긍정적 훈육방식 등 어른의 책무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양가람 기자

여수출신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취임



여수출신 강현옥(사진) 회장이 제15대 한국생활개선중앙
연합회장에 당선돼 수원시 DS컨벤션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강현옥 회장은 “생활개선회 자립화와 정보화를 이뤄 중앙과
지역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개선회 교육회관 건
립, 여성농업인 디지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등 3가
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958년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진성여고를 거쳐 순천대 최고 농업경
영자과정을 수료하고 전남생명농업대학을 1기로 졸업했다. 현재 고향 여수에서
농산물 가공 등 농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호남 출신으로 첫 중앙회장에 당선돼 2년간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이끌어 오면서 조직 활성화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등에 힘써 왔다.

강 회장은 “10만 회원의 숙원사업인 생활개선회관 건립에 전역량을 모으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소통하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겠
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